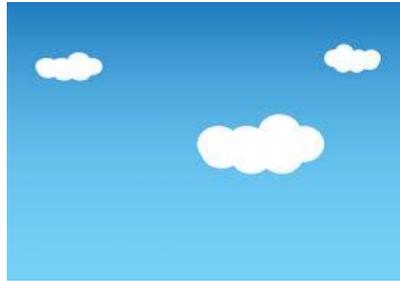


# 심사위원/편집위원의 윤리지침



푸른하늘 이 상업

@부산의대  
*drsaylee@지메일*

*24.04.27*

유리

236 Yulli  
栗里



유리

동원

Dongwon  
东院·東院

화명

유리

Hwamyeong  
华明·華明



- 저작권
- pre-print
- 중복출판
- 저자관련
- 동의서
- 인용장려
- 표절
- 기타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저작권

Pre-print

중복출판

개인정보

약탈저널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저작권

## 저작권법 제46조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①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을 명시해 당사자 간 접촉 없이 저작물\*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해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기호.

\*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

**공유 및 저작권 보호 모두 가능!**

(저작권법에 따른 효력 발생)

# '이용허락 조건'에 관한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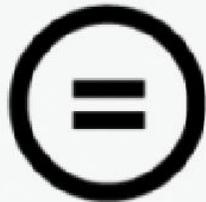
##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자 이름·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필수조항)



##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 목적으로 이용 불가.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선 별도의 계약 필요



##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 변경 및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 금지



##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필수

# 이를 활용한 '6가지 CC 라이선스' 기호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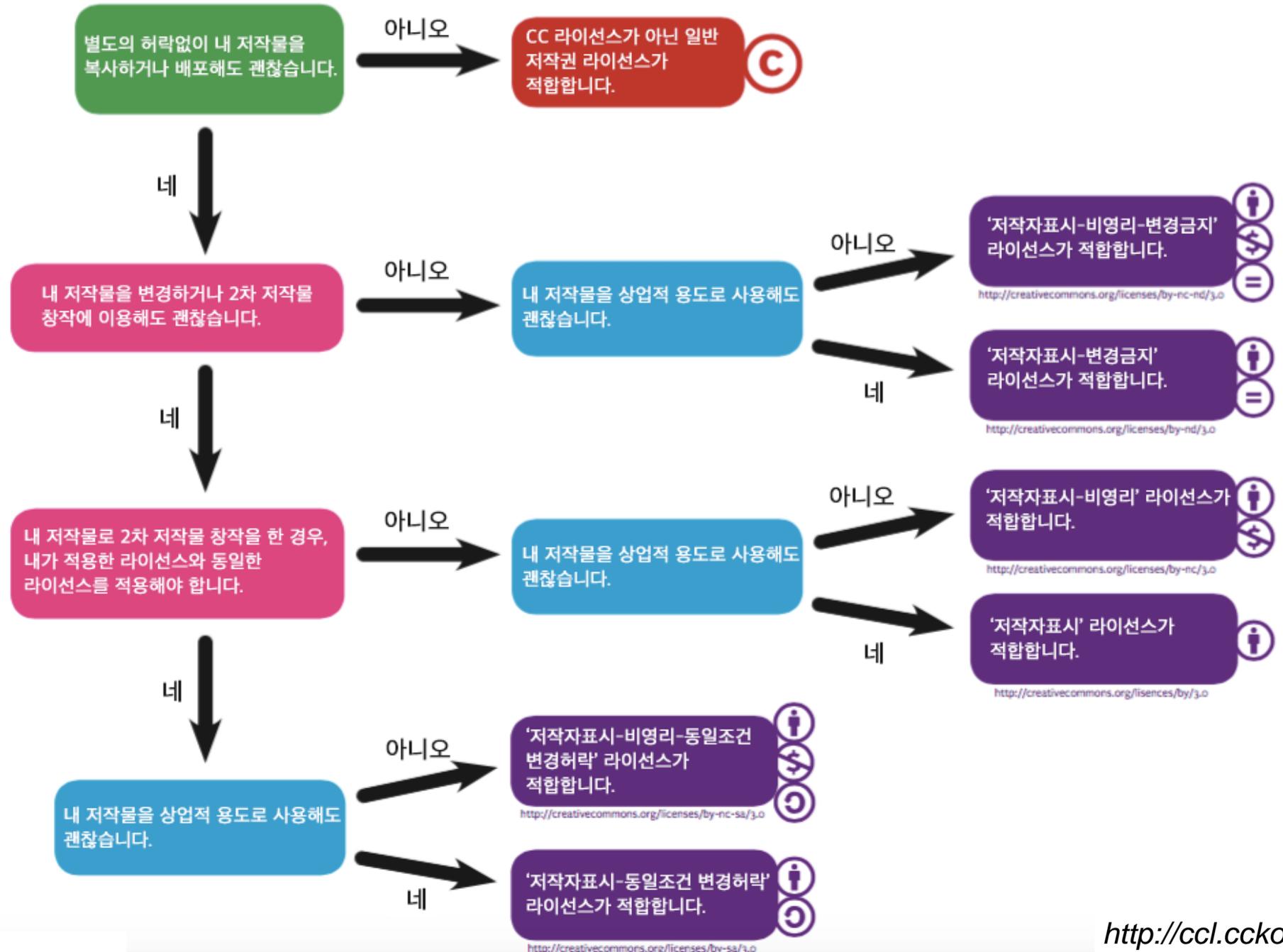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 CCL 기호가 없는 콘텐츠를 공유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접촉하는 게 우선

# 저작권 – licence back

- 본인의 과거 원저논문 그림, 테이블을 종설에 재사용시 인용표시? 자기표절? 저작권 승인필요?
- 본인의 논문을 재사용하는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이미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논문을 다른 곳에 활용할 때 허락하는 정책
-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별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명백한 자기표절의 예시

-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석사 학위 논문이나 학사 학위논문의 데이터, 결과, 텍스트를 재사용하는 것
- 편집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저널, 책, 컨퍼런스에서 이미 출판된 적이 있는 데이터, 텍스트, 결론이 포함된 원고를 과학 저널에 제출하는 것

# Text Recycling 가이드

## Text Recycling Research Project (TR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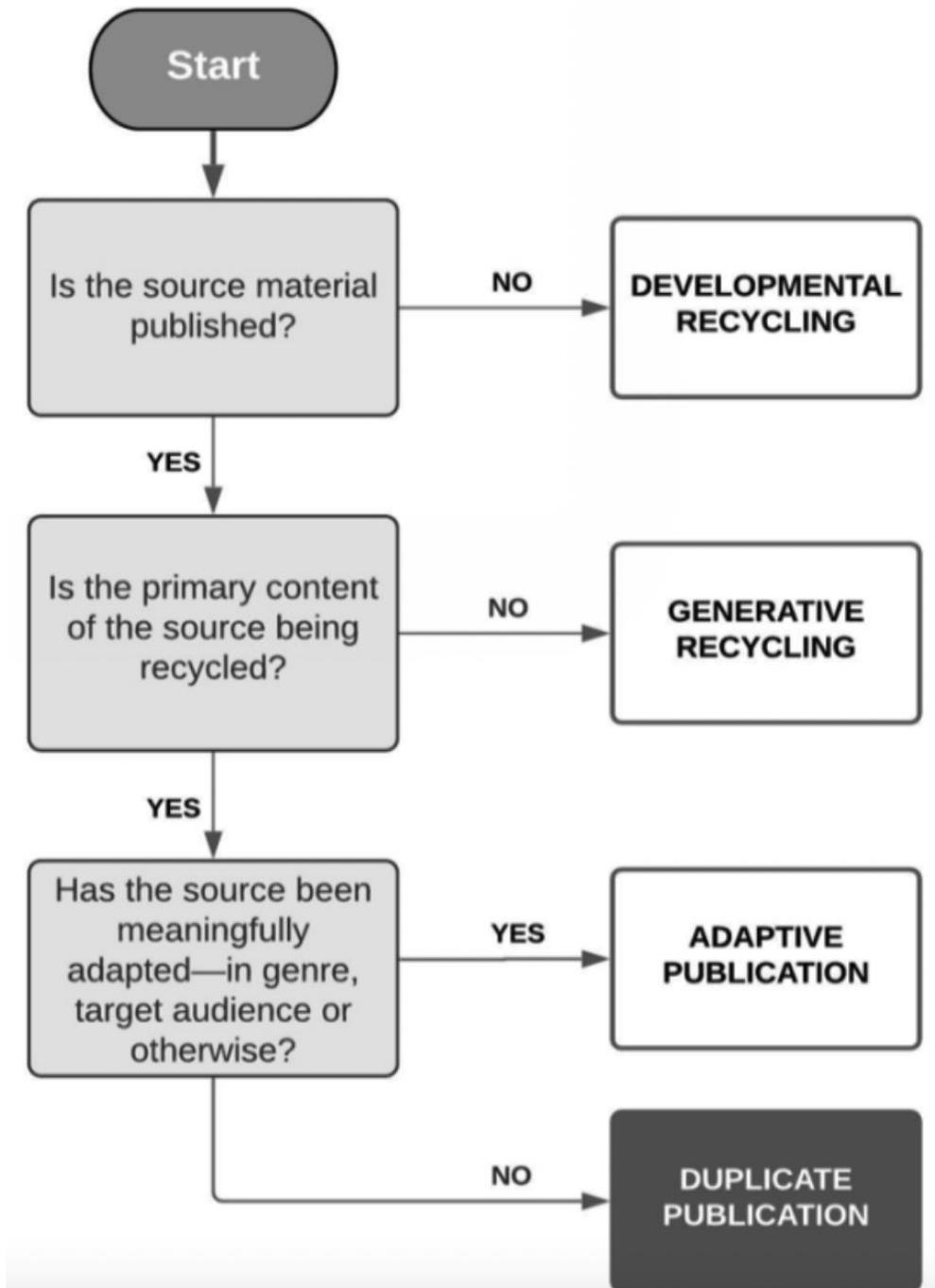
- 연구 부정행위로 널리 간주되는 표절과 달리 발생 방식과 장소에 따라 적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 self-plagiarism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표절은 아님. 따라서 이 용어보다는 Text Recycling이라고 해야
- Text Recycling 정의: source와 destination이라는 용어 염두 = reuse of textual material (prose, visuals, or equations) in a new document. 이 때 (1) 새 문서의 자료가 원본의 자료와 동일함(또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2) 원본 자료가 새 문서에 인용문(인용 부호 또는 블록 들여쓰기를 통해)으로 표시되지 않음, (3) 새 문서의 최소 1명의 저자가 이전 문서의 저자임

*Developmental recycling* is the reuse of material from unpublished documents. This is common in research and generally considered acceptable.

*Generative recycling* is the reuse of portions of a previously published document in a new work that makes an original intellectual contribution clearly distinct from that of the source. Whether it is ethical or legal depends on the specifics of the case.

*Adaptive publication* is the republication of an entire document or of its central part(s), but modified to fit a different context. The new context may, for example, be different in the target audience (different language or expertise) or genre. Whether this is ethical or legal depends on obtaining publisher permission and transparency with editors and readers.

*Duplicate publication* is the publishing of a work that is the same in genre, content, and intended audience as a previously published source document. This is widely considered unethical; in most publishing situations it would be illegal as well—whether as copyright infringement or a violation of author-publisher agreements.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약탈적 학술지

# 약탈적 학술지

특징	상세설명
동료심사	동료심사가 없거나 형식적임.
마케팅	이메일/홈페이지/영향력지수 등 공격적 마케팅
운영정보	편집부/심사자의 불투명한 정보
학술지 학문 범위	다양한 학문 분야
비용처리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 학술지 상세보기

목록

SCIE

SCOPUS

DOAJ

11

4

## NUTRIENTS

출판사 MDPI

주제어 Nutrition. Foods and food supply

ISSN (E)2072-6643

OA 유형 GOLD

등재정보 SCIE , SCOPUS

학술지 홈페이지 <http://www.mdpi.com/>

창간년도 2009

CC 라이선스 CC BY

SAFE 검토결과

Think.Check.Submit

자가진단 키트

## Think Check Submit 체크리스트 ( <https://thinkchecksubmit.org/journals/> )

분류	문항
 <b>THINK</b> (생각하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투고하고 있습니까?</li><hr/><li><input checked="" type="checkbox"/> 귀하의 연구성과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더 많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li><li>· 매주 새로운 출판사(Publisher)가 설립되고 있습니다.</li><li>· 많은 연구자들이 부실 출판(Predatory Publishing)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li><li>· 출판할 곳을 선택할 때 최신 지침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li></ul></li></ul>

 **CHECK**

(확인하세요)

선택한 학술지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귀하나 또는 귀하의 동료들이 해당 학술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해당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 최신 논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학술지명이 다른 학술지와 유사하거나 헷갈리지 않습니까?
- ISSN 포털에서 해당 학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당 출판사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습니까?

- 웹사이트에서 출판사 이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 전화, 이메일, 우편을 통해 출판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까?

---

☑️ 동료심사(peer review) 유형을 명시합니까?

- 웹사이트에서 심사자 유형(개별, 외부), 심사자 수 등을 언급합니까?
- 출판사는 전문 편집위원회 또는 분야 연구자로 동료심사를 진행합니까?
- 학술지는 논문승인이나 매우 짧은 심사시간을 보장합니까?

---

☑️ 논문이 색인되거나 특정 서비스에서 관리(보존)합니까?

- 논문이 쉽게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아카이브 됩니까?
  - 출판사는 디지털 출판의 장기 보존 관리를 보장합니까?
  - 출판사는 영구 디지털 식별자를 사용합니까?
-

☑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 비용 청구의 목적, 일자 등에 대해 설명합니까?
- 재정 지원방식을 웹사이트에서 설명합니까?
- 통화(currency)나 해당 금액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 출판사 웹사이트에서 비용 면제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 출판사에서 저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 오픈 액세스 저널의 경우, 명확한 라이선스 정책이 있습니까? 선호하는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저자의 필요에 따라 예외가 허용됩니까? 모든 출판물에 라이선스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귀하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합니까?  
예를 들어 기관 리포지토리를 통해 어떤 조건으로 작업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 저자, 편집자 및 검토자의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논문이 어떤 형식으로 제공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예: HTML, XML, PDF)
- 학술지의 이용/인용지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해당 출판사는 잘 알려진 학술출판 협력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의 리스트에 해당 학술지명이 있습니까?
-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경우) [OASPA](#)(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중앙 아메리카, 몽고 출판 학술지인 경우) [INASP의 온라인 플랫폼\(Journals Online platforms\)](#)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프리카 출판 학술지인 경우) [African Journals Online\(AJOL\)](#)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라틴 아메리카 과학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경우) [Scielo](#)에서 호스팅 됩니까?
-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스페인, 포르투갈 출판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경우) [Latindex](#)에서 색인됩니까?
-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스페인, 포르투갈 출판 오픈액세스 학술지인 경우) [Redalyc](#)에서 색인됩니까?
- 해당 출판사는 다른 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SUBMIT**

(제출하세요)

☑ 위의 질문 중 대부분 또는 전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논문을 해당 학술지에 제출하십시오.

## 자가진단 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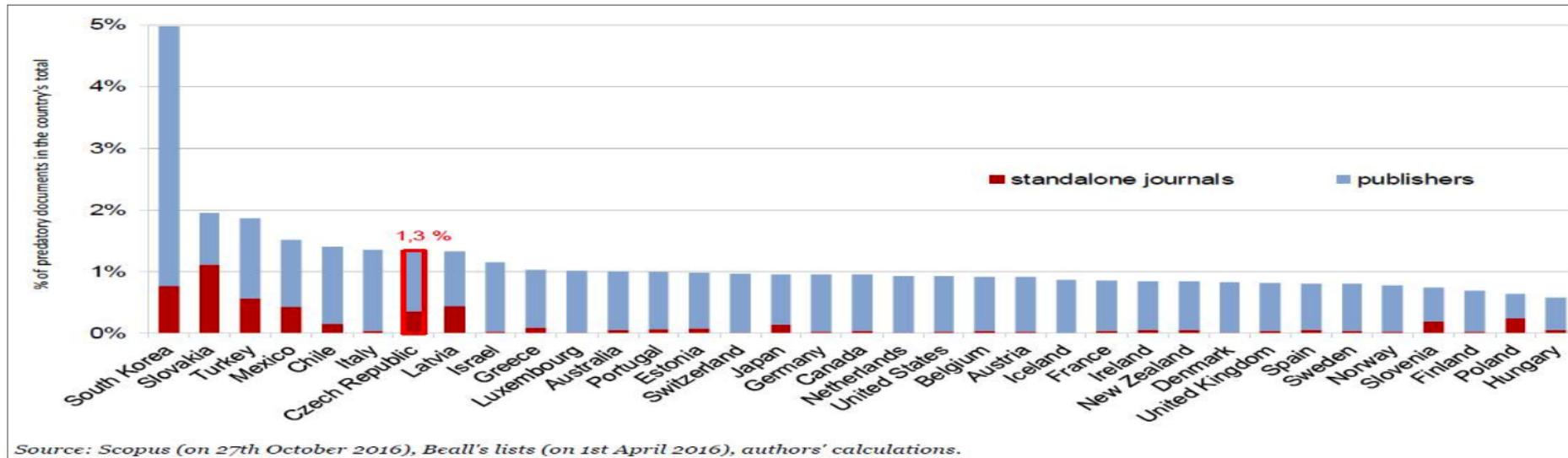
번호	문항	진단 결과
1	엄격한 peer review 없이 높은 게재료로 신속하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2	저명한 과학자가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것처럼 가정한다.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3	다양한 방식으로 높여진 사기성 영향력 지수(IF)를 내세운다.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4	학술지명(타이틀)이 전통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술지와 유사하다.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5	해당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부추기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다.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 모든 진단문항의 선택을 완료하시면 진단결과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체코과학아카데미 보고서(Predatory Journals in Scopus)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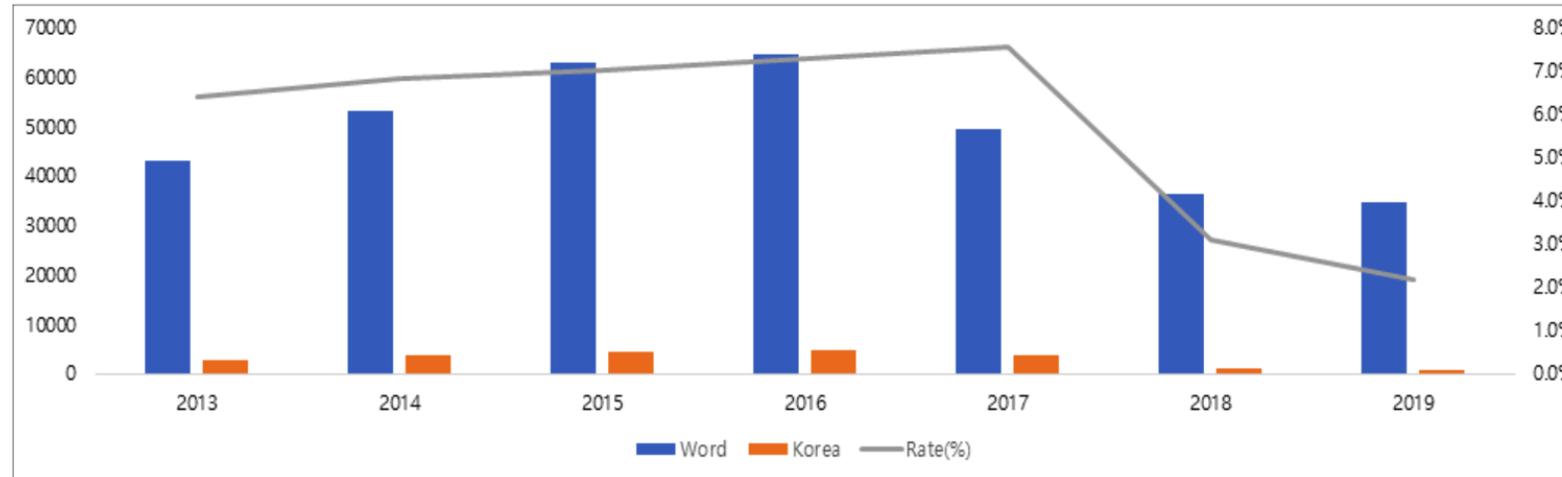
- (분석대상) 2016년 기준 비올리스트 저널(리스트를 활용하여 파악된 저널) 3,218개(\*) 중 Scopus에 등재된 부실 위험 저널은 405개인 것으로 조사됨.
- (분석결과) 한국학자들이 부실 위험 저널(Scopus급 저널 중 부실 추정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비중은 5%로 세계 25위이나, OECD 국가 중에는 1위임.

[그림 1] OECD 국가의 부실 위험 학술지 논문 비중(2013-2015)



### 추적조사 대상저널(404종)의 한국논문 점유율 변화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세계 논문	43,083	53,166	62,875	64,685	49,566	36,363	34,625	344,363
한국 논문	2,755	3,641	4,418	4,712	3,747	1,131	752	21,156
한국 점유율	6.4%	6.8%	7.0%	7.3%	7.6%	3.1%	2.2%	6.1%



### Scopus급 한국논문 중 부실위험저널 게재 논문이 많은 연구 분야(2013-2019)

구분	보건 직업	화학 공학	컴퓨터 과학	복합학	화학	재료 과학	일반 공학	물리 천문	사회 과학	수학	한국 평균
부실위험 저널 논문 비중(%)	22.5	9.0	7.5	5.4	5.0	4.7	4.5	4.3	3.7	3.5	2.8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개인정보

# 개인정보

- 환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학술지 편집인은 대상자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포함시키고, 게재 논문에도 자발적 서면 동의 취득을 표시해야 한다.
- 학술지 편집인은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거나 혹은 보관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신 동의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

- 또 환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과정에서 편집인은 원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즉, 학술지는 사례발표를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 **동의서 미취득 관련 논문철회 내용증명 수신**

증 례

<https://doi.org/10.17340/jkna.2018.3.10>

**임신 중 발생한 뇌정맥혈전증 환자에게서  
혈소판증가증과 동반되어 확인된 Janus kinase 2  
valine-to-phenylalanine 돌연변이**

- 교신저자가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논문 철회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도 논문내용으로만 본인임을 간주해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요?
- 앞으로 논문 접수시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서는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례보고는 연구로 취급하지 않아 윤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식별 정보는 보호되어야 함**
- **나이, 임신부, 치료 병원정보, 희귀질환 유전변이 등은 잠재적으로 환자의 식별가능 정보임**
- **정보노출이 불가피하면 출판 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 취득이 필요함**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지침

# 연구대상

- 환자를 모아서 질병의 특징을 파악하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논문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설문조사의 저자됨

- A 교수는 특정 질환의 진료행태를 알기 위한 설문을 작성하여 90명의 의사에게 질의를 하였다.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설문에 응한 의사를 공저자로 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

# 출판윤리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 출판

- 의편협에서 발간한 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전체 내용을 특정 학술지에 게재 하여도 되는가?

# 학술지 투고 규정의 연구, 출판윤리항목

-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필요한 연구 및 출판윤리 관련 항목은 무엇인가?

# 아이디어 표절

- 영문 종설을 작성하면서 이미 출간되어 있는 기존 종설의 차례나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하였지만 동일한 단어, 표현을 자제하여 CrossCheck 유사도가 4% 밖에 되지 않은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 동일 대상의 논문 작성

- 연구 대상은 동일하지만 주된 연구 방법을 다르게 접근하여 출간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 가?

# 표절

- 종설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종설을 참고하며 작성하였다. 일부 문장은 적절한 표현이 없어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가?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저자됨

# 저자됨

- A 씨는 자신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 1 저자가 바뀌어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것을 알았다 . A 씨의 학위논문을 지도한 B 교수는 관련 학술지에 A 씨를 제 1 저자로 표기하여 논문을 투고하여 출간하였으며 이어 영어로 번역하여 A 씨를 제외하고 다른 인사를 포함하여 영문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이를 정부연구비 지원기금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 A 씨가 영문 논문에 저자됨을 주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저자순서와 책임저자

- A 씨는 논문을 투고하면서 책임저자와 제 1저자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 가나다 순으로 저자를 배열한 후 투고하였다. 출간 후 출판사에 저자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출판사는 수록저자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 학위논문을 연구결과 제시물로 사용한 경우

-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학위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기관의 연구업적 관리부서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라 제소하였다.

#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 A씨는 B씨 지도아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였다. B씨는 A씨 학위 지도 후 수 년 뒤 사직하였으며, A씨는 자신의 학위 논문이 자신의 허락없이 학위를 받은 기관의 C씨가 제 1저자, 원로교수인 D씨가 책임저자로 출간된 사실을 알았다. A, B씨는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책임저자 D씨는 해당 논문을 교내연구비 업적 보고를 위한 결과물로 원고에 감사의 글(acknowledgments)로 표기를 하였다.

# 학위논문 관련 이해관계

-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과제의 결과는 나왔으나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기존의 계획서 이외의 자료들을 모았고 이런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중이다. 후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를 학위 논문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학위 논문에 위배가 되나?

# 저자 소속 표기

-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작성된 연구를 타 기관으로 옮긴 후 투고하는 경우 소속 표기는?

# 공동발행 학술지의 저작표기

- 다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임상지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학술지 3곳에 동시에 게재하려고 한다. 임상지침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같은 내용을 제 1저자는 같지만 각 학술지에는 다른 책임저자로 표기하여 동시에 게재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중복출판,  
이차출판

# 공동 학회의 가이드라인의 다 학술지 게재

- 4개의 학회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학회지에 게재하려고 한다. 중복출판인가? 그리고 저작권료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 비교적 빈도가 낮은 질환을 가진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방향(예를 들면 한 논문은 진단, 다른 쪽은 치료 등)의 연구가 시행되어 발표된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대상 일부가 같으나 연구목적이 다른 경우

- 일정 기간 동안 치료받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 관련 인자를 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라 A 논문은 특정 세포형으로의 분화 유무가 전이병소와 예후에 미치는 영향, B 논문은 전이 시기와 개수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 C 논문은 전이병소 제거술이 예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D 논문은 완전 전이병소 제거술 후 면역치료 여부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 가?

# 일부 같은 대상이 포함되고 다른 언어로 발표된 경우

- 두 논문(A, B)은 영문논문(A)과 한글논문(B)으로 책임저자는 같으나 공동저자는 다르다. A 논문은 short communication이고 B 논문은 원저이다. 대상자가 특정 계층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B 논문에서는 A 논문이 제한이 있어서 수행되었음을 밝히면서 A 논문을 문헌에 인용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두 논문 모두 표기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가설, 연구장소 및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유사하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대상 또는 관찰기간이 늘어난 경우

- A 교수가 증례(같은 주제)를 묶어서 한글논문으로 이미 출판하였다. 같은 병원의 B 교수가 앞의 증례에 새로운 증례를 합하여 분석한 논문을 SCI급 저널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는 A 교수, 제 1저자는 B 교수로 하고 이 논문에 앞의 증례가 포함되었다고 참고문헌에 언급했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이 추가된 경우

- 두 논문(A, B)은 코호트 대상군에서 같은 간암발생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두 번째 B 논문은 첫 번째 A 논문에서 분석한 간암 발생 요인으로 공복시 혈당 요인 외에 대사증후군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B 논문에서 먼저 출판한 A 논문의 '대상' 이 B 논문에 포함되었으나 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A 논문을 인용했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표절문제처리

- 기 발행된 국내 학술지의 특정 논문(A)의 그림이 동일한 시기의 국외 SCI 학술지에 게재된 B 논문에 사용되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가 스스로 A 학술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출판으로 인한 제재는 책임저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저자에게 해당되는가? 연구비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과 연구비 제공기관에 모두 통보를 해야 하는가? 중복출판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책임저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제기된 문제이어서 고의적인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기에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처리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하여 게재된 경우

- 두 논문(A, B)은 한글논문(A)과 영문논문(B)으로, 일부 저자의 차이가 있지만 책임저자가 동일하다. 논문내용 즉, 초록,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그림과 표가 모두 동일하고 참고문헌도 거의 동일하다. 두 논문의 투고시기도 거의 같아서 한글논문 투고 3개월 후에 영문논문을 투고하여 이중투고를 하였다. 영문논문 투고 당시 먼저 투고한 한글논문 투고사실을 영문논문 편집장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두 논문이 모두 같은 해에 게재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저자가 알리지 않았다. 이 경우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게재된 한글 학위논문을 영문논문으로 게재하면서 저자도 변경한 경우



- 모씨는 박사학위(A)를 취득한 후 해당 논문(B)을 지도교수와 함께 공저자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후 수년 후 모씨는 학위논문을 지도교수 이름을 제외하고 제3의 저자와 함께 영문으로 국외 학술지에 게재(C)하였다. 중복출판이 의심되자 모씨는 B 논문의 철회(retraction)를 요청하였다.

# 학술대회 초록집과 이차출판

- 학회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발표자료집을 제작하는데 발표논문 1편당 A4 25면 정도의 분량으로 원고 전문이 실리게 될 때 이후에 이 전문을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 타 학술대회 발표 연구의 게재

- A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symposium으로 발표되었던 논문을 A 학회가 아닌 B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분절출판

(salami)

# 연구 기간과 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된 경우

- 3편(A, B, C)의 논문이 국외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 3편은 연구대상(A 논문의 연구대상은 주요우울장애 환자와 정상대조군, B 논문은 양극성장애를 가진 조증 환자와 정상대조군, C 논문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상대조군)은 다르나 연구기간과 연구방법이 동일하고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연구 대상의 범위가 다르나 일부 대상이 같은 경우

- 두 논문 (A, B)는 같은 시기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투고 되었다. B 논문의 연구대상은 A 논문의 사용된 대상의 일부이다. 즉, 두 논문은 동일한 국가 연구자료에서 연구대상의 범위만 달리하고, 나머지 연구방법이나 결과는 동일하다. 각각 다른 결론이나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 없으며, B 논문의 내용이 A 논문에 포함되어 있다. 두 논문의 책임저자가 동일하고, 접수일은 유사하고 각각 논문의 공동 연구자의 소속은 다르다.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동일대상에서 여러 결과가 확인된 경우

- 한 균주에서 항균제 내성 관련 효소가 5개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효소의 성상 규명만으로도 하나의 논문이 되기에 이들 효소를 각각 나누어 보고할 경우 한 균주에서 발견되었기에 중복출판에 해당하는가?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지적재산권과

Open Access

# 블로그에 올릴 경우 지적재산권

-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을 개인의 블로그에 올리려 하는데 가능한가?

# Open Access 저널에서 저작권인계동의서

- 온라인 학술지로 Open Access (OA) 학술지이다. 현재는 '저작권인계동의서' 를 공저자에게 받고 있는데 OA 저널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기에 공저자에게 출판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

# Open Access 학술지의 인용

- Open Access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그림과 표를 해당 잡지 편집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
- Open Access (OA) 학술지는 출처만 밝히면 원학술지 출판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가?

# Open Access 적용 시기

- 학술지가 Open Access (OA) 선언을 하였다면 선언 이전에 발행되었던 논문들도 동일하게 OA 적용을 해야 하는가? OA 선언 이전의 논문 적용은 발행기관이 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언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

# 외국학술지의 논문인용

- 해외출판사에서 발행한 논문에서 그림이나 표를 인용할 경우 각주에 “modified from” 등의 형태로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Copyright Clearance Center에 정식으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또한 원본 그림을 약간 수정하거나 표를 변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한 논문에 표를 5-6개 한꺼번에 인용할 경우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저작권인계동의서

- 모 학술지는 투고규정 중에 저작권관련 내용이 있지만 저자 사인을 포함하는 저작권이전 계약서를 받는다. 이 경우에 논문의 저자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가?

# 국문번안한 설문지의 사용

- 영문 설문지를 번안한 한글판 설문지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설문지 내용을 부록에 제출하였다면 1) 설문지를 재번역(retranslation) 해야 하는지, 2) 영문판으로 작성한 뒤 개정해서 사용을 했다는 내용으로 써야 할지, 3) 부록에 삽입하지 말고 원고안에 풀어서 작성한 뒤 참고문헌 표시를 해야 하는가?

#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자료 사용 동의

- systematic review나 meta-analysis 할 때 연구에 자료가 포함된 인용연구에 대하여 저자들에게 자료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reference에 명기로 충분한가요?

# 투고규정 인용

- A 학술지가 현재의 Aims & Scope 및 Author guide, checklist 등을 점검하여 수정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윤리규정 관련하여 다른 학술지의 윤리규정을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윤리규정에 다른 학술지에서 인용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용허가 절차가 필요한가?

# 출판 윤리 이바구 순서

위반자  
논문처리

# 임상시험의 보고

- IRB 승인이나 임상시험등록을 하는 논문은 원저에 국한하고, 증례보고는 생략해도 되는가?

# 중복출판 발견 후 출판사에 통보

- 국문 학술지(A)에 증례를 보고한 후 같은 증례를 외국 학술지(B)에 영어로 중복출판하였다. 이때 A 학술지가 B 학술지에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문 증례보고를 취소하면서 기관장께 중복출판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 Retraction 논문의 처리

- 어떤 이유로 학술지 논문 한 편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를 학술지에 알렸고, 등록된 원문논문은 삭제한 상태이다. 학회 쪽에서 취해야 할 추가 조치가 있는가?

COMMENT | [VOLUME 401, ISSUE 10383, P1141, APRIL 08, 2023](#)

 [Download Full Issue](#)

## Retraction—Chinese medical personnel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Editors of The Lancet](#)

Published: March 31, 2023 •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23\)00691-8](https://doi.org/10.1016/S0140-6736(23)00691-8) •

 [Check for updates](#)

[Reference](#)

[Article info](#)

[Linked Articles](#)

On March 27, 2023, we were informed by the authors of this Correspondence<sup>1</sup> that it contains inaccurate statements and personal opinions from social media, and they wish to withdraw the piece. In light of this information, we have agreed to retract this Correspondence.

## Reference

1. Sun L • Jia H • Yang T

**Chinese medical personnel after the COVID-19 pandemic.**

*Lancet.* 2023; **401**:1000

- 1 van Dijk B, van Dooijeweert B, Veenendaal AG, Ten Cate O. The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pathwa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GMS J Med Educ* 2017; **34**: 63.
- 2 Wan M, Liu S, Zhu J, et al. Challenges of senior 8-year-program medical students' scientific research in China: a multicenter questionnaire-based study. *Medicine* 2022; **101**: e29026.
- 3 Jie L. New generations of Chinese doctors face crisis. *Lancet* 2012; **379**: 1878.
- 4 Wang C, Chen S, Zhu J, Li W. China's new 4+4 medical education programme. *Lancet* 2019; **394**: 1121-23.
- 5 Hu X, Du B. 4+4 medical education: a word of caution. *Lancet* 2020; **395**: 688.

## Chinese medical personnel after the COVID-19 pandemic

As the COVID-19 pandemic comes to an end in China, medical personnel who have worked tirelessly to fight the virus (B.1.1.529) variant are now facing a new challenge. Despite their heroic efforts, many of them are now struggling to receive the

the distribution of special subsidies to those who have made special contributions is a matter of justice and should be welcomed by all.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far from satisfactory. Some argued that the management is also hopeless because the problem is so difficult to solve. But dividing people into groups really necessary when it comes to rewarding those who have worked hard?

We sincerely hope that the Chinese Ministry of Health can address this issue and ensure that medical personnel receive the compensation they deserve. The compensation is not only a matter of money, but also a recognition of their hard work and dedication. We should not let them down.

We declare no competing interests.

**Liyang Sun, Hangdong Jia, \*Tian Yang**  
[yangtianehbh@smmu.edu.cn](mailto:yangtianehbh@smmu.edu.cn)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Cancer Center, Division of Hepatobiliary and Pancreatic Surgery, Zhejiang Provincial People's Hospital, Affiliated People's Hospital, Hangzhou Medical College, Hangzhou 310014, China (LS, HJ, TY); Eastern



Contact us with your questions at [drsaylee@지멜](mailto:drsaylee@지멜)